

위기에서 행동으로, 서울 정책구상(SI) 정책 토론회 개최

- 아태 16개국, 9개 국제기구, 혁신기업 20여 개 사 등 총 100여 명 참석
- 기후에너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공동, 녹색 혁신기업 소개
- 국내외 녹색기업, 국가별 맞춤형 해법 제시 및 국제 협력망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공동으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21차 서울 정책구상 정책 토론회’를 호텔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 정책구상(이니셔티브, SINGG* 또는 SI)은 2005년 제5차 아시아·태평양 환경개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채택된 협력사업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녹색 전환을 통해 아·태지역 회원국의 지속가능한성장과 기후 회복력 강화를 지원해 왔다. 올해는 5단계 사업기간(2026~2030) 첫해로, ‘위기에서 행동으로: 아·태지역의 녹색 전환 가속화(From Crisis to Action: Advancing Green Transition in Asia-Pacific)’를 주제로 정책과 경험 공유, 자원 조달과 파트너십 등 구체적 실행 수단을 모색한다.

* Seoul Initiative Network on Green Growth, SINGG

이번 토론회에는 네팔, 피지, 튀르키예, 캄보디아 등 아태지역 16개국 정부 관계자 30여 명과 유엔환경계획(UNEP), 아세안에너지센터(ACE),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국제기구 9개 기관** 관계자, 국내외 녹색 혁신기업 20여 개 사 40여 명 등, 총 100여 명이 이상이 참석한다.

** UNEP, ACE, GGGI, ICLEI, NIGT, UNDP SPC, UNU-IAS, WBG, WB

1일차(9월 15일)에는 아태지역 녹색 전환의 진전·과제·기회를 점검하고, 우리나라의 녹색전환(K-GX)과 튀르키예, 캄보디아 등 회원국 사례를 공유한다. 같은 날 특별 분과(세션)에서는 서울 정책구상 5단계 전략 방향과 우선 과제를 공유하고, 신규 협력사업의 추진 방향과 제안 절차를 안내한다.

특히 2일차(9월 16일) 오전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녹색 혁신-기업 발표 및 네트워킹 세션’이 열린다. 국내외 20여 개* 녹색기업에서 40여 명이 참여해 주요 녹색기술과 사업 유형(모델)을 소개하고, 아태지역 정책담당자와 국제기구 전문가는 해당 기술의 현지 적용 가능성, 사업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 △국내 오후두시랩, 뉴톤, 블루플래닛, 리코, 파이네코, 로지스틱스테크스탠다드, 시선아이티, 틸다, 베리위즈, 포네이처스, 타이가글로벌 등, △해외 오코텍코리아(독일), 리베라웨어(일본), 서스테인엔지니어링(프랑스), 베리타스비엠티(베트남), 와타웨이스트(싱가폴) 등

이날 오후에는 녹색전환 실행을 위한 금융지원 및 협력을 논의한다. 유엔대학 지속가능발전고등연구소(UNU-IAS)는 지역 협력을 통한 이행 촉진 방안을, 세계은행(World Bank)은 기후·탄소 사업의 재원 조달을,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는 녹색투자 사업 개발과 투자 연계 사례를 공유한다. 이어 제도·협치(거버넌스), 금융·자원 동원, 데이터·실행계획 등 3개 분과에서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9월 17일)에는 수도권 서부 자원순환센터(경기 화성 소재)와 시화호 조력발전소(경기 안산 소재)를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순환경제와 재생에너지 이행 현장을 살펴본다.

김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5단계 정책구상에서는 회원국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과제와 국제기구, 기업의 전문성과 해결방안(솔루션)을 연결해 실제 협력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녹색가고 역할을 한층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21차 서울이니셔티브 정책 토론회 개요.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과	책임자	과 장	권영희 (044-201-6560)
		담당자	주무관	장도원 (044-201-6567)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창업팀	책임자	과 장	박승호 (044-204-7680)
		담당자	주무관	강민성 (044-204-7663)



1 추진 경과

- '05. 3월 환경부·UN ESCAP이 공동 개최한 「제5차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 회의」에서 우리 정부 제안으로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이니셔티브(SI)” 채택
- 매년 정책 포럼, 네트워크 사업 등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제21차 토론회는 ‘위기에서 행동으로 : 아·태지역의 녹색 전환 추진’을 주제로 개최
 - ※ 아·태지역 16개국 30여 명, 국제기구 및 민간기업 참가자 40여 명 참가

2 주요 내용

- 아·태지역 녹색전환 현황·과제 점검 및 국가별 경로·우수사례 공유
- 서울이니셔티브 5단계 전략 방향과 협력사업 제안 절차 안내
- 국내외 기후·환경 혁신기업 발표 및 회원국-기업 네트워킹
- 이행 수단·재원·파트너십 논의 및 제도, 금융, 데이터 분과 토론

3 행사 일정

일 자	시 간	주요 내용	주제
9.15 (화)	09:30-9:45	•개회식(기후에너지환경부, UN ESCAP, 한국환경공단)	
	10:00-11:30	•(세션1) 아태지역의 녹색 전환 현황: 진전, 과제 및 기회	UN ESCAP
	11:30-13:00	•오찬	
	13:00-14:30	•(세션2) 녹색 전환의 진전-글로벌·국가별 경로와 시사점	NIGT
	14:50-16:30	•(특별세션) SINGG 5단계-2030 이행을 위한 방향	기후부, UN ESCAP, 한국환경공단
9.16 (수)	9:20-11:30	•(세션3) 녹색 혁신 - 기업 발표 및 네트워킹 세션	기후부, 한국환경공단
	11:30-13:00	•오찬	
	13:00-14:30	•(세션4) 녹색 전환 이행 촉진: 수단, 재원, 파트너십	UNDP SPC
	14:45-16:30	•분과 토론 : 국가 경험과 우선순위	UN ESCAP
9.17 (목)	09:30-18:00	•(현장견학) 수도권 서부 자원순환센터, 시화호 조력발전소	한국환경공단